

# 재계, 정부 일자리 정책 화답... 하반기 채용문 넓어진다

삼성과 LG, SK, 포스코, 롯데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 인재 채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재계 1위' 삼성그룹은 이견의 회장의 오랜 외병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직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를 결정하지는 못한 상태지만 지난 달 18일 권오연 부회장이 이윤성 일사관위원회 부위원장과 간담회 직후 하반기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혔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로 채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평택 반도체라인이 최근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고 화성에서도 신규라인(S3)을 만드는 등 계속 설비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사업도 확대 추세여서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채용을

늘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LG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인적성 시험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열사들이 자율적으로 신입이나 경력 사원 공채를 진행한다. LG전자는 다음달 4일부터 통합 채용포털 사이트인 'LG커리어스'를 통해 하반기 대졸 신입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채용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매년 1000명 정도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9월에 하반기 공채를 시작하는 SK그룹은 올 초 8200명의 연간 채용 계획을 발표했으나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전명한 '사회와 함께 하는 성장'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8일 개최한 동반성장·상생협력 결의대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노력'을 실천 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삼성	반도체 설비증설-역대 최대
LG	매년 1천명-내달 4일부터 'LG 커리어스'서 접수
SK	연초 8200명 보다 확대 결정
GS	계열사별 내달부터 공채 지난해 3800명보다 늘어
신세계	10월 하반기 1만5000명 이상
현대기아차	상·하반기 1만명

포스코그룹도 하반기 신입사원 정규직 공채 규모를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그룹은 해마다 연간 1000명 안팎의 정규직 사원을 채용해왔다..

작년에 3800명을 채용한 GS그룹도 올해 규모를 확대한다. 역시 아직 구체적인 채용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열사별로 인력을 더 충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는 계열사별로 9월부터 시작된다.

두산그룹은 올해 작년(약 700명)과 비슷한 규모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달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약속한 (주)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협력업체 채용 개선 방안을 실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롯데, 신세계, CJ 등 주요 유통기업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한다.

롯데그룹은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지난해보다는 많이 뽑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쇼핑물 매장을 늘리고 있는 신세계그룹은 1만500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선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10월께 하반기 공채를 할 방침이다.

CJ그룹도 올해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 1700명보다 많은 인원을 뽑을 계획이다. 다만,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 분야에서는 채용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업계는 내수 및 수출 부진 속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그룹 전체로 지난해 수준인 1만명 안팎의 인력을 올해 상·하반기에 나눠 채용한다. 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조선 대형 3사는 대규모 신규채용이 중단된 상태로, 올해 하반기에도 채용계획이 없다. /김대성기자bigkim@



PC 게임, 삼성 스마트 TV로~ 삼성전자가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으로 유명한 미국 '밸브'와 협업해 PC용 게임 화면을 삼성 스마트TV로 즐길 수 있게 스트리밍 해주는 '스팀링크 앱'을 선보였다. 지난 6일 서울 JBK 컨벤션 홀에서 열린 '철권 월드 투어 코리아'에 참석한 게이머들이 삼성 QLED TV와 게이밍 데스크탑 PC 오디세이를 스팀링크 앱으로 연결해 철권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캠코, 광주은행과 공매 낙찰자 금융 지원

### 오늘부터 금리 인하·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서비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와 광주은행(은행장 김한)과 함께 14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낙찰자 지원 대출' 금융우대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

이 서비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진행한 공매(압류·국유재산)의 낙찰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은행 거래실적과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에서 1% 인하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도 30% 감면된다.

우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지참하고, 광주은행 각 지점에서 문의하면 된다.

김동인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그동안 공매에서 낙찰받은 고객으로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공매대금 대출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이를 계기로 광주은행과 협업을 통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공매투자자카데미 개최, 서민금융 지원 등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금융경제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 광주은행장은 "지역주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금융우대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주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 금호타이어 매각 이번주 분수령

### 채권단, 상표권 계약 이달내 완료 계획...노조, 해외 매각 저지 결의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이번주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 계약서를 전달하고 계약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작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3일 금융·산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번주 초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계약서를 금호산업에 전달하고 이달 말까지 계약 체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맺게 되는 계약서의 문구 조정과 법률 검토 등을 마쳤다"며 "이번주 금호산업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금호산업은 상표 계약 시한인 이달 안에 계약서를 검토해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현재로서는 채권단이 계열사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한 원안을 모두 수용한 만큼 상표 계약을 거부할 명분이 적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채권단의 '지역 보전' 방식을 문체삼아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가격을 사실상 깎아줬다는 논리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채권단은 일단 상표 계약 성사를 전제로 남은 매각 종결 절차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상표 계약 외 주요 선결 요건인 방산 부문 인수 승인 절차도 이번 주 시작된다.

한편 그동안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을 조건부 동의해온 금호타이어 노조(1노조)가 해외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해외 매각 저지를 위

한 단체행동에 나서기로해 주목된다.

금호타이어 1노조는 지난 10일 광주공장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갖고 '해외 매각 저지'를 결의했다. 1노조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그동안 국내공장 폐쇄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와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하며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로의 해외 매각에 원칙적으로 반대해왔던 사측은 물론 일부 노조원이나 지역 여론과도 달리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상을 이어가며 고용보장과 국내공장 투자약속, 먹튀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노조와 산업은행, 더블스타가 참여하는 3자 협상 등을 요구하며 온도 차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변화는 처음부터 해외 매각을 결사반대해 왔던 사측과 지역 여론의 우려대로 더블스타가 인수할 경우 국내공장 폐쇄와 기술 유출이 현실화 되면서 이와 다른 입장을 취했던 1노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성기자bigkim@

## 전남신보 보증지원 누적 3조원 돌파

전남신보보증재단(이사장 최형천, 이하 전남신보)이 보증지원 공금액 누적 3조원을 돌파했다.

전남신보는 지난 2001년 재단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15만8000여개 업체에 3조원의 보증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창립 14년 만에 2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년만에 3조원을 넘어서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실적을 '찾아가는 섬 서비스'와 '무서류 보증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세서민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증을 지원한 결과다.

전남신보는 이번 보증지원 3조원 돌파와 함께 고객 감사행사로 '운영적 채권회수 프로젝트'와 '소상공인 기(氣)살려주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운영적 채권회수 프로젝트는 장기 부실채무자의 연체이자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실

효성 있는 맞춤 지원을 해주는 행사다. 재단직원 이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하는 소상공인 기(氣)살려주기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는 멘토링서비스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5	15	20	31	34	42	2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163,768,725				1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3,248,301				46
3	5개 숫자일치	1,527,256				1,905
4	4개 숫자일치	50,000				92,437
5	3개 숫자일치	5,000				1,549,115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호텔 수영장

##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탠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광주일보 제휴 패키지 예약주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십니다!

-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